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EBS 뉴스, 시사인사이드, and various news and talk show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EBS 뉴스, 시사인사이드, and various news and talk show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음 6월 19일 丁亥)

36년생 행운의 탄성이 울려 퍼지리라. 48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다 하자. 60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72년생 조개 속에서 명주가 나는 이치이니라. 84년생 임시적인 방편을 도모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5, 53

42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54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66년생 불완전하게 빨리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천천히 하는 편이 더 낫다. 78년생 망망대대의 일일면주루다. 행운의 숫자 : 91, 19

짜지어 입 맞춰야 뜬다... '듀엣곡 강세'

래퍼+걸그룹, 밴드+걸그룹 등 다양한 조합

가수끼리 짝을 지어 입을 맞춘 곡들이 음원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두 가수 간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은 전혀 새로운 경향은 아니지만 과거 한 가수의 곡에 다른 가수가 피쳐링하는 개념이 컸다면 요즘은 다양한 조합을 통한 기획형 음원이 잇달아 출시되어 사랑받고 있다.

14일 오전 멜론 실시간 차트에는 허각과 에이핑크의 정은지가 듀엣한 '이제 그만 싸우자'가 2위, 래퍼 산이와 애프터스쿨의 레이나가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꿈'이 3위, 에이리나와 프로듀싱 그룹 투엘슨이 선보인 '아임 인 러브'(I'm In Love)가 5위, 율리칼라선과 아이유가 부른 '애타는 마음'이 12위에 올랐다.

또 리쌍의 개리와 정인이 지난 5일 발표한 '사랑 냄새'가 다시 순위 상승해 14위, 포맨의 신윤재와 다비치의 이혜리가 6월 출시한 '니가 빈 자리'가 26위에 랭크됐다.

올 상반기 최고 히트곡으로 꼽히는 곡도 씨스타의 소유와 정기호가 듀엣한 '쌈'이었다. 지난 2월 공개된 이 곡은 당시 40여 일간 1위를 차지하더니 5개월이 지난 이날도 32위에 머물렀다. 아이유가 신인 그룹 하이포를 위해 듀엣한 '봄 사랑 뱃꽃 말고'도 지난 4월 공개됐지만 여전히 35위를 지켰다.

이처럼 멜론 35위권에 무려 8곡이 포진한 정도로 듀엣곡은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다. 몇몇 곡은 예상치 못한 선전으로 차트에서 '복병'으로 떠올라 기획사의 매출에도 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

또 새로운 가수를 띄우는 효과도 생겨났다. 인디 음악계에서 활약한 정기고와 투엘슨, 신인 그룹 하이포 등은 음원 파워와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과 듀엣하며 폭넓은 음악 팬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특이점은 이 조합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소유와 정기고, 허각과 정은지처럼 같은 소속사 가수들끼리 듀엣한 경우도 있지만 래퍼와 걸그룹 멤버, 밴드와 걸그룹 멤버, 인디 아티스트와 주류 가수 등 의외의 조합이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최근 디핑스와 포미닛의 전지윤이 선보인 듀엣곡 '소울메이 트'도 밴드와 걸그룹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디핑스는 2012년 앨범 '슈퍼스타K 4' 출연 당시 포미닛의 히트곡 '뮤직'을 재해석해 부른 인연이 있다.

포미닛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디핑스와 전지윤이 각각의 팀에서 보여주지 않은 음악을 선보였다"며 "듀엣의 조합은 한층 다양해졌는데 과거에는 한 팀의 콘셉트에 다른 한팀이 맞추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 두 팀이 만나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음원 발매에만 그쳤다면 일부는 방송 활동까지 병행하며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래퍼 산이(왼쪽)와 애프터스쿨의 레이나

돈스파이크, 인도서 K팝 알린다

인도 아티스트 발굴 오디션 진행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37·사진)가 인도에서 K팝 알리기에 나선다. 돈스파이크는 'A.S.K'(Asian Sing Korean Soul)란 프로젝트를 꾸려 오는 16일 뉴델리로 출국, 인도 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고 현지 뮤지션과 합동 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그는 재즈 색소포니스트 신현필, 비정부가구(NGO) 단체를 운영하는 옥수희 씨 등과 함께 음악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팀 A.S.K을 만들어 외교부의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프로젝트에 공모해 '민간 공공외교관'으로 선정됐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K팝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도 이 공모에 선정돼 인도로 출국하는 A.S.K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의 대표적인 라이브 클럽 블루프로그에서 공연을 펼친다.

'코리아-인디아 퓨전 뮤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신현필이 유제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등의 가요와 '섬집아기', '아리랑' 등 한국적인 색채의 음악을 들려주고 인도의 정성급 뮤지션 아타야 발라니가 참여한다.

이어 26일에는 뉴델리의 사린홀에서 현지 뮤지션 중심의 오디션을 열 예정이다. 돈스파이크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케냐에서 진행한 오디션이 일반인 대상이었다면 인도에서는 수준을 높여 현지 뮤지션을 직접 만나 선발할 것"이라며 "지난 해 오디션이 '슈퍼스타 K'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나는 가수다' 급으로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인도 뮤지션은 A.S.K 팀의 초청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한다.

그는 '민간 공공외교관' 공모에 2연 연속 참여한 데 대해 "K팝은 이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보편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아이돌 음악이 K팝의 전부를 인식되는데 K팝의 불모지인 세계 여러 지역을 찾다니며 다양한 우리 음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MBC '왔다! 장보리' 시청률 20% 돌파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 <사진>가 13일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1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왔다! 장보리'는 전날 방송된 28회가 전국 시청률 20.2%, 수도권 시청률 20.7%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압도적인 1위의 성적으로, 같은 시간 방송된 SBS '기분 좋은 날'은 6.4%, KBS1 '세상 끝의 집'은 8.8%, KBS2 '개그콘서트'는 15.2%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돌파한 작품은 KBS 2TV 주말극 '참 좋은 시절'을 제외하고는 '왔다! 장보리'가 유일하다.

그러나 KBS 2TV 오후 8시 주말극이 웬만하면 30%를 넘는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해 온 것과 비교했을 때 '참 좋은 시절'의 성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왔다! 장보리'의 20% 돌파는 적어도 시청률 면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의 히트 이후 안방극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록이다.

이날 방송된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KBS2 '참 좋은 시절' 26.5%, MBC '호 텔' 13.6%, SBS '끝없는 사랑' 8.6%로 집계됐다. '왔다! 장보리'는 출생의 비밀과 비틀어진 욕망에 휩싸인 악녀, 악행과 모략 등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요건을 두루 갖춰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인공 장보리를 유쾌하고 씩씩한 캐릭터



로 설정해 전체적인 톤을 밝게 끌고 가고 있다. '아내의 유혹' '천사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가 자신의 장기간, 매회 새로운 사건을 등장시키고 해결하는 스피디한 필력을 이번에도 발휘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13일 방송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20년 숨어 지내던 한복 점 비술채 집안의 큰며느리(양미경)가 마침내 비술채 식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연립뉴스